

중국의 대외전략과 아프리카 화교의 전망

신은영*

목 차

- I. 서론
- II. 아프리카 화교의 발생: 후진타오 시기 대외전략
- III. 아프리카 화교는 누구인가?
- IV. 일대일로 기획과 아프리카 화교의 전망
- V. 결론

한글초록

전 세계 화교화인이 4,500만 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아프리카에도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화교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최근 20년 동안 아프리카로 이주한 '신화교'들로 이들의 이동 배경에는 후진타오 시기 해외 진출 전략과 에너지 자원 전략이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에너지 자원이 절실했던 중국이 아프리카 자원부국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 시설을 지어주면서 대형국유기업에서 일하게 된 건설 근로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과 영세 상인들이 대거 아프리카로 몰려갔던 것이다. 이들 이주자들 가운데 건설 근로자들은 정해진 기한 동안 일을 하면 중국으로

*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돌아오지만 정부의 저리 융자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사업을 시작한 중국인들은 정착을 하여 아프리카의 '화교'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개혁개방 이후 선진국으로 이주한 다른 신화교들처럼 이들 대부분은 현지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국적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표준어를 구사하며 중국인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2013년에는 시진핑 지도부의 새로운 외교 전략인 '일대일로 기획'이 나왔을 때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에너지 자원의 필요성은 줄었지만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을 이 기획에 포함시켰고 전보다 더 많은 사회기반 시설을 지어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프리카로 가는 중국인들을 더 늘어나게 하고 이로 인해 아프리카에 정착하는 더 많은 화교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더 많은 중국인들이 아프리카 곳곳에 스며들어 개인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게 되면 이들이 일대일로 기획이 목적으로 하는 '무역화대'와 '민심교류'를 실행하는 주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아프리카 화교, 중국의 대외전략, 일대일로 기획

I. 서론

전 세계 화교화인(華僑華人)이 4,500만 명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아프리카에도 100만 명 이상의 화교들이 살고 있다. 아프리카 화교의 특징은 최근 20년 동안 아프리카로 이주한 '신화교'라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4D의 대륙'¹⁾으로 불렸던 아프리카는 1960년대 식민모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내전과 전쟁으로 불과 50년 남짓한 기간

1) '4D : Death, Disease, Disaster, Despair(죽음, 질병, 재난, 절망)', 윤상욱, 2012,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서울: 시공사, pp.205-6.

동안 많게는 약 1,500만 명이 사망하였고 빈곤은 깊어지고 질병은 더 만연해졌다. 1980년대 IMF의 구조조정 정책²⁾이 시작된 이후에는 수많은 아프리카인들, 특히 지식인들이 아프리카대륙을 벗어나 유럽과 미국으로 합법, 불법 이주를 하고 있다.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유럽으로 가는 바닷길에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허다하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아프리카를 떠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인들은 무엇을 보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몰려오는 것일까?

아프리카 화교의 발생은 중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0년대 초반은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지도부가 시작되던 시기인데 당시의 어떤 외교 전략이 중국인들을 아프리카로 가게 한 것일까? 어떤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화교’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후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되고 그에 따라 대외 전략이 바뀐 것은 이미 형성된 아프리카 화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하기 위해 우선 아프리카 화교의 발생배경이 된 후진타오 시기의 외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 시진핑 시기의 새로운 외교 전략이 아프리카 화교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화교가 새로운 외교 전략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아프리

2) 80년대 서방진영은 IMF와 세계은행을 앞세워 시장가격과 환율 통제의 철폐, 방만한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공부문 고용감축, 식량보조금 삭감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원조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조건부 원조’를 제시하였다. 냉전 당시 아프리카에서 사회주의 확산을 막는데 주력했던 서방국가들은 관대했던 과거의 자세를 버리고 복수정당제와 선거제도 도입 같은 정치적 자유화도 원조 조건에 포함시켰다. 윤상욱, 2012,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서울: 시공사, pp.165-6.

카 화교에 대한 전망을 하겠다.

II. 아프리카 화교의 발생: 후진타오 시기 대외전략

1. ‘화교’와 ‘화인’

화교전문 연구가 장궈투(莊國土)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전 세계 화교화인의 수는 4,543만 명이고 그 가운데 73.5%가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다. ‘버린 백성’ 취급을 받던 해외거주 중국인이 청조 말기 처음으로 ‘화교(華僑)’라는 명칭과 함께 법적 지위를 보장받았을 당시 국적법은 혈통주의에 근거하였다. 즉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중국인이면 ‘출생지를 불문하고’ 그 자녀는 모두 중국인이었다. 그러나 1980년에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법에서 ‘화교’는 ‘해외에 정착한 중국국적을 가진 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해외국적을 가진 자는 ‘화교’가 아닌 ‘화인(華人)’으로, 그리고 이들 화인의 자녀들을 ‘화예(華裔)’라고 부른다.³⁾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최근 아프리카 대륙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해외화교화인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진(秦)왕조 이래 끊임없이 해외로 나가 동남아 각 항구에 뭍쳐 살았던 중국인의 규모는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10만 명이 채 되

3) 화교화인은 일국 내의 인구가 아니므로 전 세계의 화인의 숫자를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어 2008년을 기준으로 한 장궈투의 자료가 가장 많은 연구결과를 반영한 신뢰할만한 자료로 보인다. 莊國土, 2011, 『世界華僑華人數量和分佈的歷史變化』, 『世界歷史』, 第5期, p.63.

지 않았다. 17세기부터 시작하여 동남아 지역에 서구 식민지가 건설되고 이들 화교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중국의 친척들을 초청하면서 대규모 이민이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19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 화교는 150만 명 정도에 불과했다(庄國土, 2009: 4).

진정한 의미의 대규모 이민은 19세기 후반 흑인노예무역의 폐지로 식민지의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정부를 압박하여 쿨리무역을 합법화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 때 500만 명가량의 중국인들이 동남아 지역뿐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등 서구 자본주의 국가가 개척한 식민지로 이주하여 광산 개발, 철로 건설, 그리고 대규모 플란테이션 농장의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마다가스카르에 남아있는 6만 명가량의 아프리카 화인들이 이 시기에 이주한 자들이다(최승현, 2007: 173).

두 번째 대규모 이동은 유럽에서 발발한 세계대전 당시 후방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자 500만 명가량의 중국인들이 유럽 각 지역으로 일하러 가게 되면서 발생했다.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해외화교의 수는 1,000만 명으로 늘어났고(최승현, 2007: 61-64), 전쟁 후 그들이 가족 친지들과 재결합하면서 1980년대 초에는 2,000만 명에 이르게 된다(庄國土, 2009: 63).

세 번째의 대규모 이동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1970년~2008년 동안에만 전 세계 각지로 이주한 중국인들은 1,000만 명이 넘었다. 그중 홍콩과 대만의 중국인이 160~170만, 그리고 90년대 이후 대륙의 중국인이 약 800만 명 정도 이주하였다. 목적지를 살펴보면 선진국으로의 이민자 수가 약 700만 명이고⁴⁾ 개발도상국으

4) 최근 북미대륙과 유럽 등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신화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북미 화교화인은 530만 명으로 1980년대 이전 세계 총화교의 4%였던

로의 이민은 300만 명이다. 그리고 이 3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2000년 이후 아프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아프리카 화교들이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이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에 관심을 보이고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화교의 수는 10만 명에 불과했다(Barry Sautman and Yan Hairong, 2007: 89). 그나마도 남아공과 마다가스카르에 있던 각 30,000명씩을 제외하면 다른 50개국가들에는 중국공산당 정부가 1960년대 이후 원조명목으로 파견한 수 만 명의 기술자들과 의료진들만이 있었을 뿐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영토크기를 고려한다면⁵⁾ 드넓은 아프리카 땅에서 중국인들을 보기는 거의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2000년 제 1차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 이후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규모 원조를 시작하면서 아프리카로 이주하는 중국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2. 후진타오(胡錦濤) 시기 대 아프리카 외교 전략

후진타오 지도부 시기(2002년~2012년)에 들어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자원 확보가 외교 전략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중국은 유전과 광물이 풍부한 아프리카 대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간 막대한 무역흑자를 통해 축적한 외화를 바탕으로 대외원조 방식을 통해 사회기반 시설을 지어주기 시작했다(전가림, 2008: 113-147,

것이 2007년에는 12%로, 유럽의 경우 1%에서 5%로 늘어났다. 庄國土, 2011, 「世界華僑華人數量和分布的歷史變化」, 『世界歷史』, 第5期, p.4.

5) 아프리카대륙의 전체인구는 약13억 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16.4%에 불과하지만 영토의 크기는 전 세계 지표의 1/5정도(대륙면적 3,036만㎢, 길이 약 8,000km, 너비 약 7,360km)를 차지하는 대륙으로 미국, 중국, 유럽, 인도, 아르헨티나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 윤상욱, 2012,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서울: 시공사, p.19.

김애경, 2009: 173-197). 그 때까지만 해도 서구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와 내전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로 인해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 시설이 거의 없었다. 거기에 더하여 서구의 잘못된 원조도 한 몫 했다. 1970년대 이래 서구 국가들은 아프리카 신생국들의 산업건설을 위해 3,000억 달러 이상의 원조금을 제공했지만(담비사 모요, 2012: 86) 2000년대까지도 40년 전의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대보다 더 낮아졌다. 1981년과 2002년 사이 아프리카 빈민 수는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사하라 이남 지역에는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350만 명이 넘어 전 세계빈민의 약 50%가 집중되어 있었다(담비사 모요, 2012: 30-32).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은 원조의 많은 부분이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 성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서구가 원하는 정권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서구의 대외원조 방식은 주로 사회 복지나 인도주의 비중이 높았는데⁶⁾ 아프리카의 부패한 지도자들이 원조자금의 많은 부분을 사적으로 유용하였고, 자원부국의 경우 자원을 팔아 생긴 자금도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프리카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자원을 팔아 생긴 ‘자원 머니’를 산업건설을 위한 ‘자본’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었다(윤상욱, 2012: 120-162).

6)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원조규모도 줄어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 세계 주요지원국이 개도국에 제공한 원조 규모는 2.7% 감소. 원조 규모도 국내 소득 총액의 0.31%에 불과해 0.7%의 목표에 턱없이 모자란 것이었다. Deborah Brautigam, 2011, *The Dragon's Gift: The Real Story of China in Afric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0년대에 들어와 아프리카에 대규모 원조를 시작한 중국은 이런 서구국가들의 원조방식을 따르지 않고 사회기반시설을 지어주는 방식을 택하였다.⁷⁾ 중국의 대외원조에는 무상원조, 무이자 차관, 우대차관 등 3가지 방식이 있는데⁸⁾ 아프리카에 대한 우대차관은 약 30%였고 그 우대차관의 61%가 원조대상국의 교통, 통신,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사용되었다. 우대차관은 정부의 지원 하에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2005년에는 8억 달러의 우대차관을 제공하여 55개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2007년부터는 50억 달러를 제공하여 87개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그리고 2009년부터는 100억 달러를 제공하여 325개 프로젝트(76개국)를 진행하였다.

중국은 이런 기반시설을 원조해주는 대신 중국기업이 건설을 맡고 관련된 설비와 제품 역시 중국에서 수출하는 조건을 달았다. 중국정부가 금리를 보조하고 자금을 조달해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이 공사대금을 받는 구조인데 이 방식은 대부분 일본이 중국에 제공했던 원조 형식을 참고한 것이다. 일본정부도 중국에 우대차관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본기업이 중국에서 시설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7)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23개 회원국이 제공한다. 그러나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라서 개발원조위원회에 원조액수를 보고하지 않아 외부에서는 원조규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2011년 4월이 되어서야 발표된 '중국 대외원조 백서'에서 밝힌 중국의 대외원조는 2009년 말까지 총 363억 달러였다. 張翹, 2012, 『龍的禮物』, 『新世紀週刊』, 31期., 『이코노미 인사이트』, 한겨레신문사, 2012, p.74.

8) 중국의 무상원조와 무이자 차관은 국가재정에서 지출한다. 무상원조는 주로 병원, 학교, 수도시설, 주택 등 중소형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주고(2009년까지 대외원조의 약 40%) 무이자 차관은 주로 원조 수혜국의 공공시설 건설과 민생사업에 사용된다(2009년까지 대외원조의 약 30%). 마지막으로 우대차관은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수준(금리 연 2~3%)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Deborah Brautigam, 2011, *The Dragon's Gift: The Real Story of China in Afric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p.208-209.

런 방식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의 공항, 철도, 제철소, 항만, 발전소 등 기반시설이 건설되었다.⁹⁾ 일본 정부도 특별계정을 통해 중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맡은 일본기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2년 3월 작성한 내부보고서에서는 이런 ‘통합방식’의 원조가 수혜국의 부패와 원조금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40년 동안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사회기반 시설이 없던 아프리카 대륙에 사회기반 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했고 그 바람을 타고 중국인들이 대거 이주하게 되었다. 결국 아프리카로의 대규모 이주는 중국정부의 에너지 외교 전략과 그 실행방식인 대규모 원조와 대형국유기업의 사회기반 시설 계약 수주에 기인한 것이었다.

III. 아프리카 화교는 누구인가?

가장 먼저 아프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은 노동력 송출 회사의 모집에 의해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하러 간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빈곤과 질병의 대륙으로의 이주를 결심한 것일까? 그리고 이들을 ‘화교’라고 부를 수 있을까?

9) 일본은 중국의 최대원조 지원국으로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의 대 중국 원조규모는 총 3조 3,164억 8,600만 엔(약 406억 달러)으로 중국이 외국에서 받은 원조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Deborah Brautigam, 2011, *The Dragon's Gift: The Real Story of China in Afric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p.46-8.

1. 대형국유기업의 깃발을 따라간 근로자들

이주의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정교함을 더해 왔지만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일치하는 점이 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이론’, ‘노동시장 분절론’, 그리고 ‘세계 체제론적 접근론’ 등의 이론들은 모두 해외 이주가 ‘자본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들’로부터 ‘자본은 풍부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국가들’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주로 주변국의 노동력이 더 높은 임금을 받고자 중심국(선진국)의 미숙련 직종으로 흡수된다는 것이다(석현호, 2000: 7-21).

이러한 이주이론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들의 아프리카로의 이주는 매우 모순적이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보다 더 가난하고 또 유휴 노동력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아프리카로의 이주의 배출요인과 흡수요인을 보면 이주이론의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인의 아프리카로의 이주가 ‘개인의 합리적인 결정’이기보다는 ‘국가의 대외전략’에 기인한 측면이 더 강할 뿐이다.

우선 배출요인을 보면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에 가려 했던 이유가 이주 목적국에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가 전체로 보면 거액의 대외원조를 약속할 정도로 많은 외화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업호구’들은 여전히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고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게다가 2003년 새로 공포된 ‘집체토지승포법(集體土地承攬法)’으로 도시에서 일하는 농촌의 젊은이들이 토지를 분배받지 못하게 되면서(溫鐵軍, 2011: 248) 자신의 노동력밖에는 팔 것이 없는 유동적인 산업예비군이 되었다. 이들의 수가 2억 명에 이르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쓰촨(四川)성 뎬양(綿陽) 출신인 36세의 ‘펑’은 중국에서는 한 달 급여가 100달러였는데 부모님이 아프시고 돈이 없어 결혼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나이지리아 카노에 위치한 플라스틱 공장에 3년 예정으로 가서 한달 550달러를 받고 일하기로 했다. 도중에 휴가를 반납하고 일하면 봉급을 두 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 후 2만 달러 정도를 손에 쥐게 되면 그 돈으로 결혼도 하고 장사 밑천으로 삼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투’(35세)와 ‘유’(31세)도 자녀들을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각각 라이베리아와 콩고로 떠난다.¹⁰⁾ 2005년 한 해 동안 건설, 광산개발, 석유탐사 및 시추 관련 근로자들만 82,000명이 아프리카로 갔다(Harry Broadman, 2007: 98).

다음으로 흡수요인을 보면 아프리카에서 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중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아프리카의 기업이 아니고 중국 대형국유기업들이었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다. 이 기업들은 2000년대 초반 당시 중국정부가 2조 달러 상당의 국부펀드¹¹⁾로 무장하고 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의 건설을 함께 묶어 계약을 수주했기 때문에 위험부담 없이 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 건설을 맡은 중국기업들은 현지에서 찾기 어려운 기술자들과 숙련공들을 자국에서 조달하였는데(세르주 미셸·미셸 뵈레, 2009: 253-254), 그 수요가 커지자 정부가 노동력 송출을 자유화하였고 그에 따라 전문적으로 노동력만을 공급하는 민간회사들이 생겨났다(Xiang Biao, 2003: 32-35). 예를 들어 1998년에 문을 연 충칭(重慶)의

10) 2008년 ‘뎬양노무수출공사’에서의 인터뷰, 세르주 미셸·미셸 뵈레, 이희정 옮김, 2009, 『차이나프리카: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서울: 예코리브르, pp.97-8.

11) 국부펀드란 정부가 해외자산매입과 같은 투자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 관리하는 외환보유자금이다. 윤상욱, 2012,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서울: 시공사, p.346.

한 노동력 송출회사는 중국인 근로자 수백 명을 아시아 전역과 뉴질랜드, 영국 등에 파견하다가 아프리카 붐이 불면서 2002년부터는 아프리카에도 보내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나이지리아에만 1,000명을 보냈다(세르주 미셸·미셸 뵈레, 2009: 105).

이러한 중국인 근로자들의 이주는 이주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에 부합한다. 중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임금에 매료되어 아프리카로 가서 일하기로 결심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임금이 중국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이들 중국인 근로자들이 아프리카의 ‘화교’가 된 것일까? 대형국유기업에서 일하는 이십만 명에서 삼십만 명가량의 중국인 근로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고 귀국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정착한 ‘화교’라고 부르는 어렵다. 오늘날 1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는 아프리카 화교의 시초는 이러한 붐을 타고 아프리카로 함께 이주한 중·소형 민간기업 관련자들과 영세 상인들이다.

2. 중국인 기업가: 직접 투자자들

중국의 대외원조는 국유기업들의 대 아프리카 진출 뿐 아니라 민간인들의 직접투자도 촉진하였다. 2009년 93억 달러 직접투자액은 2011년 147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 때 이미 2,000개 이상의 중국기업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있었다. 2001년 제10차 경제 5개년계획 이후 기업과 자본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는 정부의 ‘저우추취(走出去)’전략에 입각하여 중·소형 기업들도 해외무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촉진 정책과 세금우대조치가 생겨났다. 중·소형 기업들은 직접 국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Eiichi Yoshida, 2010: 114), 이주법도 완화되어 여

권을 만들기가 쉬워졌다. 전에는 해외교민의 초청장과 보증이 있어야 발행받을 수 있었던 여권이 2005년부터는 도시와 향진에서 신분증이나 ‘임시거류증’만 제시하면 발행되었다(Xiang Biao, 2003: 25-27).

아프리카에서 대외원조와 직접투자가 상호보완관계를 보이는 이유는 중국의 대형국유기업이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면 민간 기업들이 함께 진출하여 작은 공사들을 맡아서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가령 중국은 수단에 10년 동안 15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석유기반시설인 송유관 건설과 나일강의 메로웨 댐의 건설(19억 달러), 하르툼 국제공항의 개축(7억 5,000만 달러) 등을 대형국유기업이 맡아서 하면 포트수단 현대화와 확장공사(7,900만 달러 규모)는 CEW(中國工程公司)가, 나일강의 물을 포트수단 쪽에 있는 아트라바 강까지 운반하는 배수관 공사(3억 7,300만 달러)는 후난성의 CMIC(湖南中經國際貿易有限公司)가 맡아서 하고 나일 강 유역의 배수펌프장, 4개의 다리 건설은 여러 개의 더 작은 중국기업들이 함께 책임지고 하는 식이다(세르주 미셸·미셸 뵈레, 2009: 211). 또한 콩고에서도 대형국유기업이 ‘앵블루 댐’과 수도 브라자빌의 상수도 공급망, 공항터미널, 푸앵트 누아르~브라자빌 도로 등을 건설하지만 ‘요요’지역에는 웨이하이(WIETC(威海國際經濟技術合作股份有限公司)가 병원과 도로, 그리고 주택 1만 채를 건설하였다(세르주 미셸·미셸 뵈레, 2009: 10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에서의 ‘저우추취(走出去)’전략은 국유기업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민간 기업, 특히 소형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촉진하였다. 가령 2007년 탄자니아에만 147개의 중국인 개인 기업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백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기업은 22개에 불과했고 대다수가 중·소형 기업이었다(Mwesiga Baregu, 2008: 152-156).

개인투자자들은 대형국유기업과 달리 현지에서 투자형태를 다양화

시키는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앙골라 ‘벵피카’에는 500 여개의 중국계 건설자재 공장들에서 10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블로코’ 공장은 시멘트 블록 등 각종 건축자재들을 생산 납품하면서 독자적으로 정수기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 정수기 공장은 2005년 설립 후 매년 두 자리 수의 성장세를 보여 2010년 기준 매출 2,000만 달러에 이르렀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다시 수도 루안다 근교의 ‘탈라토냐’ 고급 주택단지도 건설하기 시작했다(매일경제컬러풀아프리카 프로젝트팀, 2011: 88). 이처럼 대형건설의 하청업체로 아프리카에 간 개인 기업가들이 현지의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시작하면서 중국인 기술자들을 연쇄적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또한 중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곳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소형 기업가들도 있다. 가령 허난성의 ‘웨이펑 농기업’에서 파견한 20명의 농민들은 현지농민 40명을 고용하여 중국채소를 재배하여 현지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판매하는데 북쪽의 베르베르에서 시멘트 공장을 짓고 있는 근로자들도 무려 500킬로미터를 달려서 채소를 사러 온다고 한다. 이들 농민들은 날씨 때문에 일하기 힘들지만 중국에서 얻는 수입보다 10배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세르주 미셸·미셸 뵈레, 2009: 209-211). 산둥성 옌타이 출신의 ‘왕’도 나일 강 중류에 약 600평의 농원을 빌려 청경채와 부추 등 중국채소를 재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식품점에 팔기도 한다(마쓰모토 진이치, 2010: 162-163).

3. 아프리카 오지까지 침투하는 영세상인들

중국 대형국유기업의 아프리카 진출로 인해 수많은 근로자들을 실

어 나르는 비행노선이 생겨나고 이 하늘 길로 중국 상인들도 상품을 들고 진출하였다. 그 결과 지금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도 중국 상인들을 볼 수 있다. 중국 상품의 아프리카 시장침투는 저렴한 가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격경쟁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소비시장은 90년대의 신자유주의 정책 과정 속에서 이미 개방되어 다른 아시아 상인들이나 레바논 상인들이 이미 대규모 아울렛과 체인점들을 만들어 가격이 저렴한 아시아 국가들의 상품들을 들여와 팔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인들은 소규모로, 다른 나라 상인들이 가지 않는 지역에 가서 장사하는 방식으로 아프리카시장에 침투하여 기존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Eiichi Yoshida, 2010: 118).

2000년대 후반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는 1만 8천 평의 대지에 2층 건물 3동에 무려 300개의 의류와 일용잡화 도매점인 ‘차이나 마트’가 생겼는데 당시 남아공 전체에 이런 규모의 도매센터가 8개 있었다. 이 건물에서 중국인 도매업자들이 의류, 신발, 가방,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의 중국제품들을 팔고 있는데 판매가 잘 되어 1인당 매달 12미터 컨테이너 분량의 물건을 새로 가져온다(마쓰모토 진이치, 2010: 145). 남아공의 중국 상인들은 친척이나 지인에게서 5,000달러에서 20,000달러 정도의 장사 밑천을 빌려와 장사를 시작하면 이자를 붙여 3년 안에 갚을 수 있다고 한다.

이들 아프리카의 화교들은 닥치는 대로 기회를 찾아 사업수완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동남아 화인들과 유사하다. 성공한 동남아 화인의 성공스토리를 보면 대체로 수익이 되면 사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인도네시아의 화교 린샤오량은 1960년대 초기에는 소규모로 제분업, 정향목 향료판매, 시멘트 공장 등으로 시작했다가 고무, 커피, 목재, 광산부터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하였다. 오늘날 그가 소유한 ‘살림(Salim) 그룹은 인도네시아 최대의 기업이다(박형기, 2007: 67). 아프리카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중국인들의 성공담은 아프리카 대륙에 사업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후난(湖南)성 출신의 ‘로이 장’은 20세의 나이로 나이지리아 라고스로 와서 싸구려 신발 판매에서 시작하여 7년 만에 종업원이 70명인 신발공장의 사장이 되었다. 그 후 시내 중심가에 후난요리 전문의 고급식당을 차렸는데 문을 열자마자 나이지리아 정치인과 부유층들의 단골식당이 되었다(세르주 미셸·미셸 뵈레, 2009: 54-55). 콩고의 ‘제시카 예’는 2000년 당시 23세의 나이로 콩고외교부 청사를 짓기로 한 중국회사의 통역으로 3개월 계약으로 아프리카에 왔다가 10년도 안 되어 중국산 신발을 가져와 파는 가게를 7개 열었고, 이후 식당, 나이트클럽을 인수한 뒤, 알루미늄 창호 제조회사, 자동차부품공장, 가구공장, 담배 공장 등도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저장(浙江)성 윈저우(溫州)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 80명을 불러 들였다(세르주 미셸·미셸 뵈레, 2009: 70-71). 이와 같이 문어발식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프리카 대륙에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빈틈 시장이 많다는 것을 뜻하며 이들의 성공신화는 중국인들의 이주를 더욱 촉진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대출 등 정부의 우대 정책이 계속되는 한 하청을 맡은 아프리카의 개인 투자자들과 비행장, 항구, 철도, 도로 등의 사회기반 시설이 만들어질 수록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오고 거기서 다시 각 국 오지로 침투하는 소규모 영세 상인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을 자유롭게 초청할 수 있는 환경은 이들이 귀국하지 않고 아프리카에 정착할 확률을 더 높인다.

문제는 중국의 대 아프리카 대외 전략의 지속여부이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중국의 대외수출도 줄어들었다. 중국에서 가동을 멈추는 공장이 생겨나면서 에너지 자원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한 편, 에너지 자원의 수출이 국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성장률도 줄어들었다.

2012년 들어선 시진핑(習近平)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6%대로 낮아진 ‘뉴노멀(新常态)시대’의 새로운 대외 전략을 제시했다. 아프리카 화교의 증감은 바로 이 전략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만약 에너지의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아프리카에 대한 대외원조가 줄어든다면 이를 대가로 시행해주던 사회기반 시설의 수주계약도 감소할 것이고 양국 간 교역액과 직접투자액도 연쇄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화교의 수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진핑 지도부의 새로운 대외 전략은 무엇이고 대 아프리카 전략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IV. 일대일로 기획과 아프리카 화교의 전망

1. 일대일로 기획과 대 아프리카 정책

2013년 시진핑(習近平)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유라시아의 경제와 지정학을 재구성하는 일대일로 기획을 발표한다. 시진핑 주석은 9월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돌며 ‘일대(一帶 One Belt)’를, 그리고 10월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일로(一路 One Road)’를 발표하였다. 이 기획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개 대륙에서 수행되며 전 세계 인구의 63%인 67개국 4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국이 유라시아 대

륙을 연결하는 철도와 항구 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들을 건설해 주는 내용을 포함한다(코트라 나이로비 무역관, 2018: 1). 이는 2009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그 간 수출 위주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했던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나온 대외 전략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경제성장으로 보유하고 된 외환 3조 9,000억 달러를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이 필요한 국가들에게 재정지원을 하면서 중국기업과 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주는 새로운 국제질서 개념을 정립하려고 한다(David Arase, 2015: 32). 이 새로운 국제질서 개념은 지금까지 서구가 주도해 온 ‘경제자유화를 바탕으로 한 지역통합(NAFTA 나 EU)’과는 다른 형태의 ‘정책 주도적인 무역촉진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인 교통연결망 건설로 경제거래를 더욱 활성화시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5차례에 걸친 해외순방에서 1,400억 달러에 달하는 양자 혹은 다자협력 협정에 서명하면서 이 기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¹²⁾

일대일로 기획에서 아프리카 대륙과 관련된 것은 ‘일로(one road)’ 부분이다. ‘해상 실크로드’로도 불리는 이 기획은 동남아시아, 중동, 지중해 지역, 동아프리카 연안국으로 연결되는 ‘무역채널 확대를 위한 항구개발계획’이다. 이 기획에서 중국과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대륙은 가까운 동아시아에 비해 중요성이 덜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12) 5월에는 아프리카 4개국(38억 달러), 6월에는 그리스(50억 달러), 10월에는 독일(181억 달러)과 러시아(100억 달러) 11월에는 미얀마(80억 달러)와 아세안(100억 달러), 12월에는 카자흐스탄(180억 달러), 세르비아(130억 달러), 헝가리(30억 달러), 태국(100억 6천만 달러), 인도차이나(30억 달러) 등 5차례의 순방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David Arase, 2015, pp.26-27.

사실은 아래 표에서 제시된 일대일로 연계 국가들과의 항구 건설 투자액에서도 보인다.

〈표 1〉 해양실크로드 항구투자

항구 이름	투자대상 국가	투자액(10억달러)
관탄	말레이시아	2.0
바탐	인도네시아	2.0
코우큐	미얀마	2.4
치타공	방글라데시	8.7
콜롬보	스리랑카	1.3
한반토타	스리랑카	1.0
과다르	파키스탄	1.6
지부티	에티오피아	0.185
바시르항	수단	0.215
라무	케냐	0.480
바가모요	탄자니아	7.0
수에즈운하회랑	이집트	1.8
피라에우스	그리스	0.880

출처: David Arase(2015), p. 36, KOTRA 나이로비 무역관(2018)

이 항구개발 계획을 보면 중국과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200억 달러에 달하여 큰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항구에 대한 투자만 해도 87억 달러이다. 반대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대륙은 탄자니아의 ‘바가모요 항구’ 투자 70억 달러를 제외하면, 사하라 이남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투자는 10억 달러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이 항구개발 계획만으로는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전략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시진핑 지도부 시기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2년 집권 이후 7년 동안 아프리카를 네 차례나 순방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게다가 2012년 집권 이후 아프리카에

더 많은 대외원조를 약속하고 있어¹³⁾ 아프리카 대륙이 중국의 전체 기획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에서 2018년 현재 중국이 주도하는 아프리카 사회기반 시설들을 보면 일대일로 기획에 포함된 아프리카 동부의 연안 국가들(이집트,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의 항구 건설 계획 외에도 1,000억 달러 규모의 내륙 철도 및 도로, 그리고 다양한 인프라 건설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중국이 주도하는 아프리카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단위: 10억 달러)

국가	프로젝트	상세내역	투자액	비고
나이지리아	해안철도	라고스-칼라바 경유 10개 주요도시 연결 1,402km (원유채굴지 니제 델타 연결)	12	2018년 완공
말라위	도로	Tsangano-Mwanza(탄자니아) 간 140km	7.0	진행중
	전력	300MW급 화력발전소, 폼베아-차톨로마 간 220kV 송전선 개보수		2018. 12 예정
	공항	Chileka 국제공항 재건축		2018. 12 예정
모잠비크	댐, 수력발전소	Moamba-Major 댐 건설 및 1,500MW수력발전소 건설 공사	3.1	진행중
콩고민주공화국	도시개발	마삼바, 디마바쎌, 콜웨지 등 3개 광산도시 개발사업	6.0	진행중
수단	철도	수단항 - 카르툼 연결하는 762km 철도	1.3	2012년 완공

13)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은 후진타오 시기 50억 달러(2006년 제 3차 포럼), 100억 달러(2009년 제 4차 포럼), 200억 달러(2012년 제 5차 포럼)로 대외원조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계적 관심을 끌었는데, 시진핑 시기에 들어와서 개최된 2015년과 2018년의 6, 7차 포럼 모두 6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여 시진핑의 집권이 끝나는 2021년까지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을 공고한 사업 파트너로 삼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한겨레, 2019.08.31., 「아프리카 두고 서구와 패권 다툼 중국, 600억 달러 지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60519.html>

국가	프로젝트	상세내역	투자액	비고
이집트	신도시	신행정도시(공무원 주거시설 포함) 건설	45	진행중
	전철	신행정도시-살람(Salam)시 연결	0.74	
지부티	지역건설	지부티 자유무역지대 건설	3.5	
	전철사업	지부티-에티오피아 간 756km 전철 사업	4	2017년 완공
차드	철도	차드-카메룬-수단 연결 총 1,344km	5.6	타당성 조사중
케냐	철도	몸바사에서 말라바 국경까지 962km	7.0	진행중

출처: KOTRA 나이로비 무역관(2018)

특히, 일대일로 사업에서 지부티와 이집트는 대 아프리카 해상운송의 30%가 유입되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현재 중국은 지부티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지대, 항만건설, 전철 건설 등에 대한 대외원조는 물론 학교, 병원,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전폭적인 무상지원도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케냐의 몸바사 항구와 탄자니아의 바가모요 항구가 완공된다면 탄자니아-잠비아 철도 와 같이 기존에 건설된 육상교통과 연결되어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이어진다.

중국은 시진핑 시기에도 여전히 아프리카 대륙에 중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고 중국의 건설기업들이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맡게 하여 중국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중국인들에게는 해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중국인 근로자들은 2015년 26만 명까지 늘어났다가 2017년 현재 여전히 20만 명 이상으로 많은 수가 아프리카를 드나들며 일하고 있다(China-Africa Research Initiative Data(2018), www.sais-cari.org/data-chinese-workers-in-africa 검색일: 2019.10.01).

2. 일대일로 기획과 아프리카 화교의 전망

이상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비록 시진핑 시기에 들어와 외교 전략이 일대일로 기획으로 바뀌었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중요성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중국과 아프리카 대륙을 오간다는 것은 아프리카의 화교들, 즉 국유기업의 하청을 하는 중형 기업들과 더 작은 서비스 업체들, 그리고 영세 상인들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직접투자액과 교역액의 추이로도 증명이 된다.

1) 개인 사업가들과 영세상인들: 무역창통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직접투자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03년에서 2016년 사이의 투자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3년 3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 119억, 2014년 323억 달러, 2016년 말 현재 399억 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시기에 들어와 선진국과의 무역마찰 발생, 최저임금 인상(2010년 기준 태국의 약 1.7배, 인도와 베트남의 약 3배), 그리고 위안화 상승으로 수익이 감소하게 된 제조업 공장들이 아프리카로 이전하고 있다. 중국 최대 가전업체인 하이신(海信)과 중국 국유 자동차 그룹(第一汽車集團 FAW)도 남아공에 공장을 설립하였고 광둥(廣東)성 최대 신발업체인 화젠(華堅)은 베트남 공장을 폐쇄하고 에티오피아로 옮겼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2,000개의 중국 제조업 기업이 이미 아프리카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아프리카에 저임금의 노동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중국산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미국과 유럽이라는 거대시장과의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백주현 외, 2017: 126-127).

또한 아래 표를 보면 2017년 현재 직접 투자한 중국 기업의 수와 그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수를 알 수 있는데 중국의 국책은행들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통한 저리 용자 제공으로 아프리카에 진출한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다.¹⁴⁾ 특히 이집트, 알제리, 잠비아, 나이지리아, 모리셔스, 에티오피아 등에 설립된 7개의 경제특구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은 각종 행정서비스 및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높은 경영 효율을 보이고 있으며¹⁵⁾ 그 외 다른 나라들에도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표 3〉 중국의 아프리카 주요투자현황(2017년)

국가	투자기업	진행사업
나이지리아	240	404
남아공	152	280
앙골라	80	189
가나	90	192
짐바브웨	68	167
에티오피아	114	255
잠비아	125	273
탄자니아	78	148
콩고민주공화국	80	193

자료: 동아일보 2018년 8월 9일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1만 개 이상이며 기업인들의 수는 백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체들 가운데 90% 이상이 민간 기

14) 중국이 아프리카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600억 달러 가운데 100억 달러가 중국 기업의 투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北京商報網, 2018. 09.04, 「中國將向非洲提供600億美元支持」, <http://www.bbtnews.com.cn/2018/0904/264121.shtml>(검색일: 2019.10.16.).

15) 中非合作論壇, 2010, ‘爲何要建中非經貿合作區’, 백주현 외, 2017, p.126 재인용.

업인데 그 가운데 30% 이상이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그 외에 서비스업, 건설업, 부동산업들에 투자한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Mackinsy)가 2017년 6월, 아프리카 전역에 진출한 1만 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인터뷰 대상기업의 74%가 아프리카 진출에 낙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63%가 장기투자를 하고 있으며, 44%가 투자 철회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본집중 투자방식으로 진출해 있다고 밝혔다(코트라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2019: 1). 이러한 투자방식은 장기거주의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존스 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에 자리 잡은 중국 기업인의 수가 백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¹⁶⁾ 이러한 민간 기업가들과 함께 ‘화교’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 영세 상인들이다. 아프리카에서 화교 상인들은 장사를 해서 자금이 모여지면 개인 사업도 병행하기 때문에 두 그룹을 나누어 생각하기 어렵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18년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에서 중국이 약속한 600억 달러의 내용을 보면 바로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사업기회를 발견했을 때 저리용자를 통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해 주는 ‘1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상인들은 대출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이와 관련된 설비가 필요하면 상품을 싣고 오듯이 중국에서 기계를 수입한다.

2008년 중국과 아프리카 간 교역량은 2000년에 비해 8배 증가한 1백억 달러로 그 이전까지 아프리카의 제 1무역 상대국이었던 미국을 넘어선 이래 줄곧 아프리카 최대 교역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 후 중국-아프리카 교역 규모는 더욱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17년에는 1,700억 달러에 이르렀다.¹⁷⁾ 무역품목들을 살펴보면 아프리카로부

16)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중국아프리카연구이니셔티브”(2018.1)

17) 같은 해 미국은 480억 달러였고 일본은 157억 달러였다. 한겨레, 2019.08.31,

터의 수입은 금속자원과 광물 자원 등 원자재의 비중이 압도적인 반면 중국의 대 아프리카 수출품은 인프라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류를 제외하면 섬유·플라스틱 제품 등 주로 노동집약형 제품 위주이다(백주현 외, 2017: 125).

아프리카는 2009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세계경기가 침체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적어져 대외수출이 줄어들자 경제성장률이 2014년 4.5%, 2015년 4.0%, 2017년 2.6%로 떨어졌지만 2002년에서 2008년까지 보여 주었던 평균 6.4%의 경제 성장률로 인해¹⁸⁾ 2010년 기준 중산층이 전체 인구의 34.3%로 증가하였고 이들이 가전제품과 내구재의 주요 고객층이 되고 있다(백주현 외, 2017: 126). 코트라 남아공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아프리카 간 교역규모는 매년 20% 성장하고 있다고 하여(코트라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2019: 1)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상인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영세상인들 및 민간 기업가들은 일대일로 기획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사회기반 시설 설립을 중시하는 이유가 그것을 통한 중국중심의 ‘무역 확대(貿易暢通)’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일대일로의 핵심전략인 ‘5통(政策溝通, 道路聯通, 貿易暢通, 貨幣流通, 民心相通)’에서 ‘무역창통’을 실현하는 주체들이다.

2) 아프리카의 화교들-민심상통(民心相通)

일대일로 기획의 오통(五通)의 내용을 보면 사회기반시설이 확대되

「아프리카 두고 서구와 패권 다툼 중국, 600억 달러 지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60519.html>(검색일: 2019.10.04.).

18) 파이낸셜 뉴스, 「아프리카 경제의 명암」, <http://www.fnnews.com/news/201504301735332911>(검색일: 2019.10. 09.), 기획재정부, 「2019년 세계은행 세계경제 전망치」보도참고자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84413>(검색일: 2019.10.01.).

면 무역이 확대되고 무역이 확대되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민심상통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민심상통은 중국어, 중국문화 등을 알리는 소프트 파워의 확산을 의미한다. 아프리카의 ‘화교’로 불릴만한 소액 투자자들과 영세 상인들은 사업기회를 찾아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민심상통’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상품 판매 뿐 아니라 저개발지역에서 수요가 많지만 경쟁이 적어 수익이 높은 소액 투자 사업들 즉, 마사지 업소, 식당, 약국 등의 서비스에 투자한다(세르주 미셸·미셸 뵈레, 2009: 49). 아프리카에 와서 일하는 건설근로자들은 숙소에 모여 살면서 현지인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귀국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프리카 전역에서 장사하고 수익이 나면 공장을 지어 생산을 하고 서비스업에도 투자하는 영세 상인들과 소형 기업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중국인들로 중국을 알리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2017년 미국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38개국 아프리카 국민들의 대중국인식 조사를 보면 아프리카의 국민들은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중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나이지리아가 1위, 세네갈 3위, 탄자니아와 튀니지가 공동5위, 그리고 케냐가 11위였다.¹⁹⁾

또한 아프리카 화교들은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아프리카로 이주한 대륙의 신화교들은 중국국적을 유지하고 중국어를 사용한다. 가나, 앙골라, 카메룬, 나미비아, 케이프버드 등지에서 무역, 서비스, 경공업 등을 하는 소형 기업가들

19) 반면 베트남, 일본, 인도는 최하위에서 1, 2, 3위였고 한국은 6위였다. Pew Research Center(2017), “Opinion of China: Do you have a favorable or unfavorable view of China?” <http://www.pewglobal.org/database/indicator/24>(검색일: 2019.10.01.).

의 93%가 중국국적을 가진 화교들이고(Harry Broadman, 2007: 203-208) 이들이 자녀교육을 위한 중국어 학교 설립에 나서면서 1950년대 초반 사라졌던 화교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李安山, 2017: 338). 그리고 굳이 화교학교가 아닌 현지학교에 다니더라도 아프리카 곳곳에 설립된 공자학원에서 아프리카인들과 함께 중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²⁰⁾

아프리카에 중국인 투자 기업이 많아지면서 중국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아프리카의 젊은이들도 중국어 학습에 열심이다. 중국인 기업들의 현지인 고용률은 89%에 이르고 현지인을 관리자급 이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 비율도 44%에 이른다(코트라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2017: 3). 아프리카의 공자학원들은 중국어와 중국 역사·문화뿐만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과 정보기술(IT) 교육도 제공해 인기가 높다.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공자학원에 다니는 디예예 씨(25)는 중국어를 배워 세네갈에서 도로와 건물들을 짓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취업하고 싶다고 한다.²¹⁾

뿐만 아니라 동남아 화교들은 화교신문을 만들어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아프리카에는 신화통신사(1986년 이후), 중국 중앙텔레비전(CCTV 2012년 이후), 중국국제방송 등 3개나 되는 관영미디어 매체들이 진출해 있어 굳이 중국인들이 모여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그 안에서 ‘화교신문’을 만들지 않아도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중국문화를 알리기가 쉽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화교들은 일대일로 기획의 ‘무역창통’과 ‘민심상통’을 동시에 수행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 2017년 말 전 세계 146개 국가에 525곳 설립되었는데 아프리카에는 39개국에 54곳이 있다. 문혜정, 2018,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의 대 아프리카 소프트 파워 전략」, 『한국아프리카 학회지』, 제55집, p.33.

21) 서울경제, 2018.08.19, 「미 심장서 아 벽촌까지 중국몽 침병이 된 공자학원」, <https://news.v.daum.net/v/20180819171013313>(검색일2019.10.04.).

V. 결론

2000년대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대 아프리카 전략은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에너지 자원 확보를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대륙에 사회기반 시설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아프리카로 이주하였다. 그 가운데 중소형 기업가들과 영세 상인들이 아프리카 곳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아프리카 화교가 생겨났다.

2010년대 시진핑 시기의 외교 전략의 목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대표하는 시진핑 지도부의 ‘일대일로 기획’은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경제공동체를 신설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3개 대륙 67개국에 철도와 항구시설을 포함한 사회기반 시설을 지어주고 이 길을 통해 무역을 더욱 확대하고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려 한다.

이 변화된 외교 전략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중요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비록 아프리카 대륙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해양 실크로드’의 끝자락에 있지만 10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 지역에 사회기반 시설을 지어주었던 중국의 대외원조는 항구개발 계획과 연결되어 이전보다 더 큰 원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대외원조는 중국의 대형국유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중국인들에게는 해외 일자리를 제공하여 중국 경제에 활력을 주려는 일대일로 기획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러한 항구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동을 도울 뿐 아니라 후진타오 시기 아프리카로 이주하는 화교들이 장사하고 투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한다. 아프리카 화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들과 영세 상인들의 활

발한 활동이 중국의 막힌 수출시장에 활기를 되찾아 준다면 이는 일대일로 기획의 ‘무역창통’을 실행하는 것이 될 것이며 결국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 정착하는 화교들이 많아지면 인적교류를 이루는 ‘민심상통’도 함께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애경, 2009, 「중국의 아프리카 대륙 전략적 가치 재발견」,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 담비사 모요, 김진경 옮김, 2012, 『죽은 원조』, 서울: 알마.
- 마쓰모토 진이치, 김숙이 옮김, 2010, 『아프리카의 눈물』, 서울: 평단.
- 매일경제컬러폴아프리카프로젝트팀, 2011, 『컬러폴 아프리카』,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 문혜정, 2018,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의 대 아프리카 소프트파워 전략」, 『한국 아프리카 학회지』, 제55집.
- 박사명 외, 2000, 『동남아의 화인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 박형기, 2007, 『친디아의 비밀병기 화교와 인교』, 서울: 교보문고.
- 백주현 · 조원빈, 2017, 「중국의 대 아프리카 외교전략 변화: 1993-2015」, 『국제 지역연구』, 제20권 5호.
- 석현호, 2000,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제23권 2호.
- 세르주 미셸 · 미셸 뵈레, 이희정 옮김, 2009, 『차이나프리카: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서울: 예코리브르.
- 스털링 씨그레이브, 1997, 『중국인 이야기: 보이지 않는 제국, 화교』, 서울: 프리미엄 북스.
- 원테권(溫鐵軍), 2011, 「100년 동안의 급진에서 벗어나다」, 『역사비평』, 통권 97호.
- 윤상욱, 2012,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서울: 시공사.
- 임정혜, 2019,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진출 현황 및 시사점」, 『한국아프리카 학회지』, 제56집.
- 전가람, 2008, 「중국의 대 아프리카 에너지 외교전략」, 『동서연구』, 제20권 2호.
- 최승현, 2007, 『화교의 역사 생존의 역사』, 서울: 화약고.
- 홍건식, 2018,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일대일로, AIIB 그리고 패권정체성」, 『국제정치논총』, 제58집.

- 李安山, 2017, 「戰後非洲華文教育的興衰與復甦」, 『華僑華人研究報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張翹, 2012, 「龍的禮物」, 『新世紀週刊』, 第31期.
- 庄國士, 2011, 「世界華僑華人數量和分布的歷史變化」, 『世界歷史』, 第5期.
- , 2009, 「東南亞華僑華人數量的新估算」, 『廈門大學學報』 第3期.
- Arase, David., 2015, "China's Two Silk Roads Initiative: What it Means for Southeast Asia," *Southeast Asian Affairs*.
- Brautigam, Deborah, 2011, *The Dragon's Gift: The Real Story of China in Afric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Broadman, Harry, 2007, *Africa's silk road: China and India's New Economic Frontier*, The World Bank.
- Dobler, Gregor, 2008, "Solidarity, Xenophobia and the Regulation of Chinese businesses in Namibia," Chris Alden et al., *China Returns to Africa*, Hurst publishers.
- Kaplinsky Raphael, et al, 2006, *The Impact of China on Sub-Saharan Africa*, Sussex, U.K.: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 Kaplinsky and Morris, 2009, "Chinese FDI in Sub-Saharan Africa: Engaging with Large Dragon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Vol. 21(4), pp.551-560.
- Mwesiga Baregu, 2008, "The three faces of dragon: tanzania-China relations in historical perspective," K. Ampiah and S. Naidu(eds.),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Africa and China*, Cape Town: University of Kwazulu-Natal Press.
- Mohan, Giles and May Tan-Mullins, 2009, "Chinese Migrants in Africa as New Agents of Development?"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Vol. 21.
- Xiang Biao, 2003, "Emigration from China: A Sending Country Perspective", *International Migration* Vol. 41(3),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Yoshida, Eiichi, 2010, "Preliminary Investigation on Institutions Behind the Chinese Small business Influx in Africa," Fukunishi ed., *African Producers in the New Trend of Globalization: An Interim Report*, Chosakenyu Hokokusho,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기획재정부, 「2019년 세계은행 세계경제 전망치」 보도참고자료,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84413>(검색일: 2019.10.01.).

동아일보, 「중국이 아프리카의 왕 될판… 원조 더 받으면 안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906/91856705/1>(검색일: 2019. 10.02.).

서울경제, 「미 심장서 아 벽촌까지 중국몽 침병이 된 공자학원」, <https://news.v.daum.net/v/20180819171013313>(검색일: 2019.10.04.).

코트라 나이로비 무역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아프리카 어디까지 왔나?」 (2018)(검색일: 2019.09.04.).

코트라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아프리카로 향하는 중국의 적극적인 투자공세」 (2017)(검색일: 2019.09.04.).

파이낸셜 뉴스, 「아프리카 경제의 명암」, <http://www.fnnews.com/news/201504301735332911>(검색일: 2019.10.09.).

한겨레, 2019.08.31, 「아프리카 두고 서구와 패권 다툼 중국 “600억 달러 지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860519.html>(검색일: 2019.10.16.).

北京商报网, 「中国将向非洲提供600亿美元支持」, <http://www.bbtnews.com.cn/2018/0904/264121.shtml>(검색일: 2019.10.16.).

China-Africa Research Initiative Data: Chinese Workers in Africa,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2018), www.sais-cari.org/data-chinese-workers-in-africa(검색일: 2019.10.01.).

Pew Research Center, 2017, "Opinion of China: Do you have a favorable of unfavorable view of China?" <http://www.pewglobal.org/database/indicator/24> (검색일: 2019.10.01.).

Foreign Strategies of China and Prospects of African Chinese

Shin Eun Young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of Hanyang Univ.)

Abstract

More than 1 million Chinese are also living in Africa, with 45 million ethnic Chinese around the world counted. They are the new 'Overseas Chinese' who have moved to Africa in the last two decades, and behind the shift is the Hu Jintao-era energy resources diplomacy. China, which was in dire need of energy resources to continue economic development, has built infrastructure needed by Africa's resource-rich countries, prompting construction workers as well as private investors and small merchants to flock to Africa. Among these migrants, construction workers return to China if they work for a set period of time, but the Chinese, who started their business across the African continent using low-interest loans from the government, have settled down and become new 'Overseas Chinese' of Africa.

In 2013, when the Xi Jinping started new diplomatic strategy of "one road one belt strategy" came out,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reduced the need for energy resources, but China has included the African continent in the project and decided to build more social infrastructure than before. This will create more African Chinese, and if more Chinese enter into Africa and do their own business and trade, they will be the main drivers of the booming Chinese export market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Key Words

African Chinese, Foreign Strategies of China, One road one belt Initiative